

## “ 반박할 수 없는 질문들 ”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들은 최고로 기쁠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미치겠다 또는 죽겠다는 말로 표현한다. 최고로 기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죄인 된 우리를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니 무슨 말 하리요 했다. 그래서 사도는 다섯 가지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 성도의 믿음을 확실히 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많다. 신학적으로는 세상과 경욕을 좇는 육신 그리고 악마 사탄이 우리의 원수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은 죄의 씨를 품고 있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밖에서 오는 원수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다.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편에 계시다면 우리를 넘어 쓰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공격과 비난과 유혹이 와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이길 것이라 한다.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죄가 많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확신의 표현이다. 시험을 당해도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친구가 필요할 때 나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삶의 방향과 방법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도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시32:8)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 소망과 환희를 주신다.

셋째,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한 이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는 불에 그슬린 나무라 하시며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더러운 자라 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정죄할 자가 없으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

넷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했다. 누가 고발하리요 한 것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의 태도가 바뀔 수 있겠는가 물으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혜사로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로 하늘에서 자신의 보혈을 보이시면서 다시 저주가 없도록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같은 우리를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다. 우리를 등산가의 등 뒤의 밧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안전을 보장 받게 했다는 것이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적들이다.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어내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게 한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울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복음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반박할 수 없는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01, 11:20am] [Rev. Euichang Kim, PhD]

Praise & Worship .....	Praise Team	
Prelude .....	Pianist	
* Call to Worship .....	Pastor	
* Hymn .....	25 .....	Congregation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i Chan Yoo	
Hymn .....	263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Pet 1:13-17 .....	Pasto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astor	
Anthem .....	Jerusalem Choir	
Sermon .....	“Coram Deo” .....	Pastor
* Hymn .....	484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Congregation	

(. Please stand)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b>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b> ② <b>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b> ③ <b>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b>	<b>서울교회QR코드</b>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전도사</b> 박미라	<b>교육전도사</b> 김은숙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사(황정(러시아), 허창범(현(일본), 김낙형 - 오정(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바스다파, 사지, 에누(인도), 스프로트(바론이, 필리핀, 프란스프, 수레시, 수버샤, 알로롱, 비시누(밴도, 보디스프, 린름, 수란준(방글라데시) /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인(필리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

### ■ 시편 126:1-6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사로잡힌 자들의 망향의 노래로 알려진 시편 137편과 한 쌍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과 더불어 타국에서의 애환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이라면 시편 126편은 포로의 마지막 때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감격을 묘사한 것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 찬송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동시에 장차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힘을 다해 수고의 땅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면모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온의 포로들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해방은 이들의 수고와 땅과 눈물과 헌신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 서두에 주어로 “여호와께서”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19:10). 이 말씀은 70년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혹 해방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같이 승리의 개신가를 부를 때 사단은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기쁨과 감격을 훼손하는 교활한 짓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함과 삼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쭐대고 싶은 감정을 악용할 것입니다.

### 2. 과거를 잊고 미래의 수확을 위해 땅 흘리자

시편 137편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분통터지는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편 126편 말씀이 주는 교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양감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같은 일군이 되도록 단련시켜주셨으니 그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의로운 통치자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들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앞에서 책임질 일들은 분명히 해야 함이 옳지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전범들은 그 참혹한 일들을 벌인 것에 대해서 다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길을 위한 수고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 맺는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감격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힘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온전히 성취해 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남방 시내들 같게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쁨의 단을 거두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만 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40: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8(시 6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35(5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4:10-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321(35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고전 4:10)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찬양예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00:1-2 ..... 인 도 자  
 찬 송 ..... 568 ..... 다 함 께  
 기 도 ..... 이민호 집사  
 성 경 ..... 출 15:19-2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바꾸어 주신 하나님” ... 설 교 자  
 찬 송 ..... 349(387)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I 부: 정경자 권사 II 부: 허 숙 권사  
 성 경 ..... 삼하 9:1-1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 서명철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소식

- ◆ 모 임
- 1. 정기당회 / 11월4일(수) 오후 8시 402호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 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 결 혼
- 1. 문병섭 군(14교구 문영호 장로, 박정자 권사의 장남) 노하람 양(노현홍 성도, 배건희 성도의 장녀) / 11월 7일(토) 낮 12시 소망교회 선교관 2층(02-512-9191)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 ◆ 장 례
- 1.故 송남이 집사(2교구 이갑연 집사의 모친) / 24일(토) 별세, 26일(월) 발인
- 2.故 서영세 권사(6교구) / 29일(목) 별세, 31일(토) 천국환송예배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971명	589명	2,560명	452명	1,220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0/2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25일	현 금	99,578,7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870,000
	찬양운영비		7,640,000
	교회학교운영비		806,600
	선 교 비		100,000
	출 판 비		1,460,000
	복리후생비		236,850
	통 신 비		354,440
	수도광열비		323,90
	차량유지비		206,900
	도서인쇄비		24,000
	사무용품비		55,500
	소모품비		475,110
	환경유지비		2,772,400
	수선유지비		1,523,050
	식당운영비		609,630
	합 계	99,578,700	98,117,870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